

경제5단체수여투명경영대상수상

김종신 한국서부발전 사장

“3C 경영으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기업 만들 터”

지 난달8일공기업으로는처음으로한 국서부발전이경제5단체가공동수 여하는 투명경영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투명경영대상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투명경영을통해기업의신뢰성확보와기업가치극대화를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이 상은 국내 유일의 최고 경영 대상으로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이번에 수상 기업을 선정한 최종 심사 위원들의 면모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최종 심사 위원은 진념 전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송병락서울대교수, 박인상한국노동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강기원 여성경영자협회 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배병휴「풍월」발행인 등 각계의 명망 있는인사들로구성되어있다.

서부발전은심사에서Clean, Competitive, Companion의3C 경영 료를 바탕으로기업가치를향상시키기위한상시경영 혁신을추진하며, 윤리경영을적극실천하고윤리만족도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여 고객중심제도개선에앞장서온점을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노사가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고 신바람 나는 훌륭한 일터를 만들어 구성원의 만족을 실현하고 있는 점도 수상의 계기가 되었다. 김종신 사장은“ 이번 투명경영대상 수상은 한전에서 분리된 발전 회사로서연료는짧지만지속발전가능기업이 되기위하여전임직원이합심하여노 령한결과 라고말했다.

김종신사장에게투명경영은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투명 경영은



대내외 이해 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이라고 단언하였다. 즉, 회사 경영비전을임직원이동의하고자발적으로 참여할때혁신적인성과를만들수있으며, 이러한 경영 활동을 이해 관계자들이 납득 해야만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회계·환경등에 있어서는 법과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정보를공개하며, 윤리경영과사회공헌활동도적극실천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이와 관련김종신사장은지난해 11월 투명성확보로무디스로부터국가(A3)보다한 단계 높은 해외 신용 등급(A2)을 획득한 데 대해자부심을갖고있다고말했다. 그는이러한 성과가 국내외에서 주기적으로 기업

설명회를 하고, 금융감독원 공시 등 적극적인 회계 정보 공개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구축·운용한결과라고말했다.

김종신 사장은 3C 경영이 윤리 경영 정착(Clean), 경쟁 역량 강화(Competitive), 화합 경영 실현(Companion)바탕으로 젊고유능한인재들이모이는‘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존경받는 기업 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서지속적인성장을하기위해서는윤리경영, 경쟁역량, 노사화합이필수요소임을 강조한것이다.“ 젊은이들이선호하는기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회사가‘ 지속 발전 가능한 존경받는 기업 으로 성장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고 그역량을바탕으로다시성장하는지속성장의선순환고리를갖추는회사로만들겠다는것입니다.”

김종신 사장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기업 ’을 만들기 위해 혁신 실행 전략인‘ Y-project 2007 ’을 수립하여 전 임직원들의 역량과 경영 자원을 집중하고있다. 그리고 미래지속발전가능기업으로서존속할수 있도록 경영 혁신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6시그마를 공기업 모델로 만들어 공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에까지 전파할 계획이다.

한편, 김종신 사장은 아시아 1호 프로젝트 경영 전문가(PMP) 자격증 소지자로 현재 한국프로젝트관리기술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프로젝트 경영에도 관심이 높다.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